

#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과 에코뮤지엄의 융합 방안 연구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이 한 주\*

- I. 서론
- II. 두 제도와 이론의 맥락적 이해
- III. 융합을 통한 두 제도와 이론의 재맥락화
- IV. 결론: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지역주민이 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의 이론을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와 융합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영주시는 한때 철도 교통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쇠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시행했고 또한 영주동 일대를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지역활성화

---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강사 / 18724@naver.com

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방식은 건축물 구성과 지역 환경 정비 위주의 물리적인 공간 구성에 치우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고 객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신박물관학의 일환인 에코뮤지엄 이론을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와 융합하는 방식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두 제도와 이론은 일정 구역과 구역 내 문화자원의 활용, 구역 내 주민 동의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조성과 운영 주체, 문화자원의 기준과 보존 및 활용 방식 등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연구자는 이런 측면을 바탕으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의 문화유산과 문화자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문화유산과 문화공간의 연계성 부족, 공간 조성 및 운영상의 문제, 운영 프로그램의 부재, 주민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코뮤지엄 이론인 중핵박물관 설립과 위성박물관 개발 및 이들의 연계, 특화된 운영 프로그램, 주민 중심 운영, 주민의 수익 창출 등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융합적이고 학제적 접근 방식의 문제 제기로 추후 관련 학문 분야의 논의 확장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단초의 제공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주제어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에코뮤지엄, 지역재생, 지역주민, 지역자원

## I. 서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최근 흐름은 문화수용자 중심 즉,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주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0세기의 공공기관과 전문가 주도의 문화유산 보존 중심에서 21세기에는 그동안 객체화되고 일방적 수용자 역할에 머물던 문화 소비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도 보존 중심에서 활용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들 수 있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은 기존 점 단위 등록문화유산의 파편적이고 고립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계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문화유산에 대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면적 단위(영역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 시 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의와 참여,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를 하기 좋은 방식이다. 그러나 국가가 제도를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나은 지역정체성 함양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현재보다 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문화유산 등록 이후의 보존과 활용에 명시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항구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간 조성 및 건축물의 활용,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야 한다. 또한 영역 내 문화유산의 대상 범위를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유산과 그들의 삶 등 무형적 요소까지 확장해 장소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주민 스스로 마을 전부를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에코뮤지엄(Ecomuseum)과 유사한 것이다. 에코뮤지엄은 생태, 생태학을 뜻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박물관을 의미하는 뮤지엄(museum)을 합성한 용어로 국내에서는 생태박물관, 환경박물관, 야외박물관 등으로 불리며 기존 박물관과는 다른 개념과 형태의 박물관이다. 에코뮤지엄은 특정한 영역 또는 지역을 모두 박물관으로 정해 그 안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생활문화유산, 자연유산, 지역 인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재 삶도 전부 박물관의 유산에 포함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물관의 조성과 운영을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며,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인문 생태환경에 관해 연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개념이다.<sup>1)</sup>

본 연구는 영주의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인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유산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의 주요 이론을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와 융합하는 방식의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방향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1980년대까지 경북 내륙의 철도 교통 중심지였으나 현재에는 여타의 지방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한때 번성하였던 결과물인 과거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도시재생을 시행했고 그 일환으로 영주동 일대를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도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시와 국가유산청이 주도하는 즉 관이 주도해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지정에만 관여하고 있고 영주시는 건축물 조성과 지역 환경 정비 위주의 물리적인 공간 구성에 치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객체화되고 있고 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 오히라 가즈오키,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김현정 옮김, 아르케, 2008, 19~22 쪽.

이런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와 적용 지역의 보존 및 활용 양상에 관한 분석과 에코뮤지엄의 국내 조성과 이론 적용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2018년에 시작된 짧은 역사로 인해 연구 성과가 많지 않고, 국내에서 에코뮤지엄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들의 유사성에 관한 분석과 연구는 없었다.

두 제도와 이론은 문화수용자(지역주민) 중심과 문화유산의 활용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지만, 각각의 장단점 또한 뚜렷하다. 본 연구는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사례를 통해 상호 융합과 이론적 확장성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문화수용자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주도적 역할을 할 발전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두 제도와 이론의 맥락적 이해

### 1.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과 에코뮤지엄의 맥락적 개념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은 2001년에 도입된 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점 단위의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개별 문화유산의 보존 중심에 따른 연계와 통합성의 한계점을 보임에 따라 2018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에 가중치를 둔 제도이다. 특히 활용에 있어서 폭넓은 법적 완화가 적용되는데 면적 단위의 등록 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등록된 등록문화유산 외 일반 건축물과 시설물의 용도나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sup>2)</sup> 이에 따라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은 군산, 목포, 영주, 익산, 영덕, 통영, 서천, 창원, 여수로 9곳이 있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의 유형은 4가지인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잘

---

2)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http://www.khs.go.kr), 검색일: 2024년 8월 1일.

보존된 공간으로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징적 장소로 기능하는 ‘역사거리’와 당대의 경관적 특성과 생활문화유산, 전통 등을 잘 보존하고 있는 ‘역사마을’, 지정 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역사문화지구’, 산업 역사의 가치를 잘 간직하고 있는 ‘산업유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등록 기준은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집적된 곳으로서 지역 내 핵심 공간이자 보존과 활용의 가치가 높은 곳과 일정 구역 내 근대 건축물 중 개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해야 하고 개별 등록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영역 안의 여러 문화유산을 연계해 통합적 보존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면적 단위 보존과 활용의 특성상 등록 구역 안의 개인 소유자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등록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가능케 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화 되고 맥락을 가지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적이고 연결된 지역의 문화자원들은 좀 더 넓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에코뮤지엄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모두 포함해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특정한 지역을 모두 박물관 영역으로 구성한다. 특정한 지역 또는 공동체의 유·무형 문화유산, 공동체의 기억, 지역 인물,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 등 특정 지역이 지닌 모든 자원을 현지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박물관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자아 인식과 함께 외부와의 관계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의 박물관이다.

에코뮤지엄은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즉 단편적이 아닌 맥락적으로 이해된다. 지역은 그들의 자원, 환경과 함께

---

3) 김용희,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과 기대 효과」, 『건축과 도시공간』 31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85~86쪽.

시간에 따라 더불어 변화하는데 에코뮤지엄은 그 변화의 방향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며 다양성과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sup>4)</sup>

프랑스의 박물관학자인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은 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이 만드는 보존기관이고 연구소이며, 스스로 학습하는 학교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의견을 중요시해야 하며 다양성에 한계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이며 진화하고 있는 뮤지엄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형태이며 가변적, 미래지향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된다고 하고 있다.<sup>5)</sup>

국내 에코뮤지엄은 대표적으로 ‘경기에코뮤지엄’이 있으며 에코뮤지엄 명칭을 쓰지는 않지만, 유사한 명칭과 이론을 도입해 지역재생과 지역활성화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기에코뮤지엄은 경기도 전역을 영역으로 하며 도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위성박물관에 해당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기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인물자원 등을 보존 및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 강화와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청주시와 태백시 철암에서는 에코뮤지엄 조성을 시도한 바 있으며, 영천 가래실문화마을, 군위 화분마을, 거창 임불리마을 등 마을만들기나 마을박물관 조성에서 에코뮤지엄과 유사한 형태와 방식이 진행됐다.

이상과 같이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와 에코뮤지엄은 지역과 지역문화, 주민, 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식 등의 측면에서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 주체와 방식, 각각의 장점과 한계점 등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와 이론의 공통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하되, 탈맥락화를 시도해 융합 방식의 새로운 재맥락화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의 실질적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4) 오하라 가즈오키, 앞의 책, 22쪽.

5) 오하라 가즈오키, 앞의 책, 24~25쪽.

<표 1>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구분	형태	유산의 범위	유산의 보존과 활용	구성 주체	운영 주체	주민 참여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선·면적 단위	개별 등록문화유산 위주	완화된 보존+ 활용	국가, 지자체	지자체	수동적 참여
에코뮤지엄	특정 영역	영역 내 모든 유산	현지보존+ 활용 중시	지역주민	주민공동체	주체적 참여

## 2. 두 제도와 이론의 탈맥락화

### 1) 탈맥락화의 필요성

두 제도와 이론의 탈맥락화 필요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근대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확장의 필요성이다. 국내의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은 대부분 근대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해 있으며 특히 건축물이 많다. 이는 등록문화유산의 성격상 당연한 결과이지만 유형문화유산에 치우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화 시기(1970~1980년대) 생활문화유산과 동일시기 지역의 인물, 그리고 지역의 사건 등을 근대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삶과 그들의 기억, 공동체 문화, 지역의 인물 등을 유산의 범주에 포함해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형적 가치를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개념으로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은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전제로 그들의 생활 공간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형태이지만 주민은 객체화되었고 그들의 삶과 문화도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 이론을 적용해 무형적인 요소에 가치를 부여하고 문화유산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지정은 지역공동체의 의지와 참여를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정 과정과 활용 현장에서 국가유산청과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고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유산 지정과 활용의 전(全) 단계에 걸쳐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제도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 형태는 민관 공동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이 되도록 하고, 이런 활동이 문화적 지역재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객체화와 파편화에서 벗어나 공공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창군 임블리는 공공기관의 도움 없이 주민 위원회 주도로 마을박물관 조성 및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활동을 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이들의 공연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마을 내 교육관 건립 등의 보조 역할을 하였다.<sup>6)</sup>

셋째로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에코뮤지엄 개념 확산의 필요성이다. 최근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에코뮤지엄 이론을 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2000년대 초 에코뮤지엄 이론이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주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이론을 적용해 마을만들기와 전시관, 마을박물관 조성 등을 시도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역을 영역으로 하는 '경기에코뮤지엄'을 관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지자체 주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객체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에코뮤지엄의 조성 및 운영이 지역 활성화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에코뮤지엄 개념과 定義에 맥락상 맞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조성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에코뮤지엄 스스로 개념과 정의의 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에

6) 성진석, 「주민주도형 마을박물관의 현황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언-거창군 임블고품 전시관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31, 한국박물관학회, 2016, 39~42쪽.

코뮤지엄 개념 확장은 지역 스스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는 확장된 개념의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탈맥락화의 방향성

본 연구가 지향하는 탈맥락화의 방향성은 첫째, 제도와 이론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와 에코뮤지엄 이론이 특정 영역 또는 지역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융합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둘은 공통점도 있으나 각각 조성 주체와 문화유산의 범주, 관리방식, 구성, 운영, 소요 예산 확보 등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에 에코뮤지엄 이론을 융합해 정책적 단점을 보완하고, 에코뮤지엄 이론에 제도적, 정책적 부분을 도입해 개념 확산과 정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융합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관 주도의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단점에 주목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며 그 결과물으로써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동체가 문화유산 지정의 의사결정 과정과 보존 및 활용에서 피상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태생적 단점의 보완을 위해서는 선·면 단위 내 개별 등록문화유산 위주의 보존과 활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중심 제도에서 지역주민이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면적 단위 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유산, 무형유산인 공동체의 삶과 기억, 자연유산인 지역

환경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제도로 전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에코뮤지엄 개념과 발전적 정의의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한다. 국내의 에코뮤지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론 연구와 해외사례 연구, 국내 적용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론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유럽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용하려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에 국가나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 가능성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확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코뮤지엄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해외에서의 에코뮤지엄 이론은 학문적으로 끊임없이 개념과 정의를 확산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지역공동체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적용 방안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속성을 지닌 에코뮤지엄을 그동안 국내에서는 무비판적이고 기계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려 했다. 이에 연구자는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에코뮤지엄 개념의 확산과 정의의 발전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단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융합을 통한 두 제도와 이론의 재맥락화

#### 1.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의 현황

##### 1) 개요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영주시 영주동 일대에 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경북 내륙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관공서가 밀집한 도시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근대화의 산물로 이곳에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시청과 기차역이 이전하고 새로운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이곳은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영주시는 영주동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시업지구로 지정하여 ‘근대문화경관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구도심의 구역 통로와 후생시장을 중심으로 근대 한옥상가의 전면적인 정비와 노후화된 건축물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으로 근대경관거리를 조성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목적으로 1950~1960년대 분위기의 ‘근대경관거리’를 조성하여 영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자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근대역사체험관’, ‘황금시대방송국’, ‘게스트하우스 소백’, ‘영주문화과출소’, ‘빨강인형극장’, ‘골목오락실’ 등의 문화예술 관련 공간이 조성되었다.

한편 이곳은 일제강점기 철도의 역사와 당시의 지역 생활문화사를 잘 보여주는 철도관사와 이발관, 정미소, 근대한옥, 교회 등이 잘 남아 있으며 이는 근대문화를 생활사 위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존과 활용 가치를 토대로 2018년에 근대문화유산을 위주로 하는 선·면 단위의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기존의 근대경관 거리와 함께 일대가 영주의 근대문화를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 2)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의 현황<sup>7)</sup>

### (1) 구 영주역 5호 관사, 7호 관사

일제강점기 당시 중앙선 철도 공사를 담당한 공병대 기술자들을 위해 건축된 숙소이다.<sup>8)</sup> 이 일대에는 이와 같은 관사가 10여 채가 남아 있으며 원래의 집단적인 형태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이곳은 관사로 인해 마을 이름도 관사골로 불리며 여전히 현재에도 영주의 지명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주의 정체성과도 연

7) 국가유산청, 「2018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2018, 180~185쪽.

8) 공병대 기술자들의 숙소로 건축되었다는 부분은 추후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

결되는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도 여전히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은 에코뮤지엄의 이상인 주민의 현재적 삶을 보존하고 그것을 외부세계에 보여준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2) 영주 영주동 근대한옥

이 한옥은 원래 조선 중기 영주의 유명한 선비이자 의원이었던 이석간 고택의 별채였다. 본채는 멸실되었으며 현재의 한옥은 별채로 1920년에 신축한 개량한옥이다. 근대 시기에 한의원과 하숙집으로 쓰였으며 영주의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산이다. 현재 이 건물은 보존과 복원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주동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근대 시기의 개량한옥의 희소성과,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주 정체성과의 연결점을 잘 반영한 장소로 활용이 요구된다.

## (3) 영주 영광이발관

근대문화의 산물인 이발관이 일제강점기에 영주에 들어오면서 영주동에 생긴 이발관이다. 영광이발관은 이종수 씨가 1970년부터 지금까지 현 위치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건물 자체는 중요성이 떨어지나 영주의 근대 시기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상가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특히 현재도 지역주민이 생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생활사와 생활문화 측면에서 근대를 거처온 주민의 살아있는 현재적 삶을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용업 관련 자료를 다수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은 향후 생활문화유산 전시관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 (4) 영주 풍국정미소

풍국정미소는 1920년대 도로가 건설되고 연이어 철도 개통과 함께 영주역이 인근에 들어서면서 영주동이 미곡 유통의 중심지가 되고 상업공간화가 가속화되던 1940년경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양곡 가공과 유통에 관한 지역 산업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근대 시기 정미소의 건축구조와 형식, 관련 설비, 도정 기계, 양곡 계량 저울인 관수동저울과 막대저울 등의 당시 도정산업과 관련된 산업유산이 아직 잘 남아 있다. 건축물은 한옥 형태의 상가를 비롯해 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정미소로서의 원형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소유자가 비교적 보존을 잘하고 있으며, 관광을 원하는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는 소유자 이자 지역주민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도움과는 별도로 스스로 주도해서 산업유산 즉 근대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민주도가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유사하며 주민이 주체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더 나은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속성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 (5) 영주 제일교회

영주 제일교회는 1909년 구성공원 근처의 초가집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 멸실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의 교회 본당 건물을 1958년에 신축했다. 이 건물은 영주에서 유일하게 고딕양식을 도입한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교회는 건축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영주지역의 근대 여성교육과 아동교육, 문화활동에서 중심 역할을 한 공간이다. 1920년에 ‘강명여숙’이라는 여성 야학이 조직되어 조선어와 산술, 한자 등을 교육했으며 교인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음악회를 열고 크리스마스 기념 제등 행렬과 가극 등을 개최하는 등 영주지역의 근대적인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 활동의 일환인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한 곳이기도 하다.<sup>9)</sup>

지역에서 현재에도 종교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영주의 유력한 교회인 영주제일교회가 문화유산의 보존에만 치우치지 않고 종교활

9) 송호상, 「등록문화재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의 역사성에 대하여」, 『지역사회연구』제 31권 2호, 2023, 201~206쪽.

동을 넘어서 지역 근대역사와 관련한 상징적 공간 역할과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1> 영주 역사문화거리 등록문화유산10)



구 영주역 5호 관사



구 영주역 7호 관사



영주 영주동 근대한옥



영주 영광이발관



영주 풍국정미소



영주 제일교회

3) 기타 중요 문화예술 공간11)

(1) 영주 근대역사체험관

이곳은 영주의 근대문화를 생활사 위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형태의 공간이다. 후생시장 내 한옥 상가건물 2층에 조성되었는데 이 건물은 1950년대 건축되었으며 유형은 일제강점기 가옥을 모방한 형태이다. 주로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며 사진 자료, 도표, 디지털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전시구성으로는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주의 근현대 100여 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고 근대 시기 영주역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 존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터치스크린과 VR 체험존 등 디지털 프로그램이 있다. 주요 전시 내용으

10) 연구자 직접 촬영

11) 영주디지털문화대전, yeongju.grandculture.net, 검색일: 2024년 8월 2일.

로 영주와 관련한 정신문화인 풍수지리와 불교문화, 유교이념, 선비사상 등이 구성되어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근대 풍경을 배경으로 옛 교과과 책가방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다.

위와 같이 근대역사체험관은 대부분 전시구성이 사진, 도표, 디지털 자료 등으로 되어 있어 지역 역사와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다소 부족하다. 그리고 운영 인력이 평소 한 명이고 그나마 퇴직한 공직자가 담당하고 있어 전시나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교육해 전시관 전문인력으로 대체해야 하며, 전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황금시대방송국

황금시대방송국은 영주의 지역 FM 방송국이다. '영주FM방송국'이 정식 명칭이며 송신소 중심으로 반경 5km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다. 지역공동체 방송국은 특정한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며 지역의 비영리 공동체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관련 프로그램과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위주로 제작 방송된다. 2004년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2005년 개국하였다. 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으나 2009년에 정식 라디오 방송국으로 허가받았다.

방송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의 문화 자치 능력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생방송 진행, 영주시의 재난방송 주관, 영주경찰서의 범죄 예방 관련 방송 등이 있다. 방송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위치는 근대역사체험관이 있는 후생시장의 상가건물 1층에 있다.

## (3) 게스트하우스 소백

영주동은 1970년대까지 영주의 중심이었다. 영주게스트하우스 소백은 그 흔적을 간직한 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곳은 구 영주역과 도보로 1분 거리에 있고 구 경찰서, 구 시청과도 도보로 3~4분이

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이다. 그리고 후생시장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근현대 시기 영주동의 숙박시설이었다.

1960년대 소백여인숙으로 건축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숙박시설로 쓰이지 않다가 후생시장의 도시재생 사업과 근대역사문화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게스트하우스로 조성되었다. 현재는 침대방과 온돌방으로 된 객실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동 일원의 여행객들에게 쉼터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 (4) 영주문화파출소

후생시장 뒤편에 위치한 문화파출소는 구 영주경찰서 민원실로 쓰이던 건물이었다. 건물의 외관은 파출소로 쓰이던 당시의 건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곳은 영주와 관련된 유교문화와 조선 건국 등에 관한 역사 기록과 자료를 보관하는 아카이브 공간 역할을 하며 이를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주 원도심과 역사문화유적지 등의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이야기 지도 배부 등을 통해 영주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종합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다.

#### (5) 빨강인형극장

빨강인형극장은 후생시장 안의 단층 건축물에 있는 소규모 인형 극장이다. 어린이 대상의 상설 공연과 초대 공연, 그리고 인형극 페스티벌 등이 공연된다. 이외에 체험 공간의 역할과 옛날이야기 동화구연, 인형극 관련 콘텐츠 개발, 시 낭송, 작은 음악회 등 문화예술 공간의 기능을 하는 장소이다.

〈사진 2〉 문화예술 공간<sup>12)</sup>



영주 근대역사채입관



황금시대방송극



게스트하우스 소백



영주 문화과출소



빨강인형극장

## 2.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의 재맥락화

### 1) 재맥락화의 필요성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조성과 운영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구역의 문화유산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공간의 부재이다.

둘째, 등록문화유산 위주의 공간 조성과 운영이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에는 등록문화유산 외 다수의 문화예술 관련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만,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공간의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은 부족하다. 이는 공간 또는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운영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근대역사문화거리에는 문화과출소와

---

12) 연구자 직접 촬영

‘관사골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구역 내 근대한옥과 영광이발관, 풍국정미소의 경우 아직 보수와 복원이 되지 않아서 공간을 직접 활용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부족하다. 빨강인형극장, 게스트하우스 소백, 황금시대방송국 등 영주시 자체의 도시재생 결과물들은 대부분 외부 인력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영주동에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참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역 내 경제활동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지역주민의 수익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수익 활동이 거의 없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 이론과 요소를 도입해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의 재맥락화를 하고, 그 결과로 융합적 공간 조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2) 융합 방식의 재맥락화

첫째, 중핵박물관의 조성이 필요하다. 에코뮤지엄에서 중핵박물관(core museum)은 에코뮤지엄으로 설정된 영역 즉 구역 전체의 유산을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문객에 대한 정보 제공,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의 통합적, 핵심적 역할을 한다.<sup>13)</sup>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구역 안에는 도시재생의 결과로 조성된 문화공간과 개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간들이 함께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들 공간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 설정도 부족하다. 각각의 공간들이 동일 구역 안에 존재하지만 서로 파편화되어 개별적인 기능과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이 제도에는 애초에 문화유산 구역(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기관(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역(영역)을 전체적으로 운영

---

13) 배은석, 『에코뮤지엄-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북코리아, 2013, 54~56쪽.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핵박물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에는 중핵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전시관으로 조성된 근대역사체험관을 확대 개편하면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 중핵박물관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전시관은 현재 1층은 공실이고 2층만 전시관으로 사용 중인데 1층 공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공간을 중핵박물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프랑스의 ‘크뢰조몽소레민’의 ‘베르리성’과<sup>14)</sup> ‘브레스부르기논’의 ‘피에르드브레스’<sup>15)</sup> ‘일본 ‘아사히마치’의 ‘창유관’<sup>16)</sup> 등 타지역 에코뮤지엄의 중핵박물관도 전시관 형태를 띠는 곳이 많다. 이를 참고하면 근대역사체험관을 중핵박물관으로 개편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을 차용한 형태의 문화자원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문화적 자원을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site)처럼 개발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에코뮤지엄에서 위성박물관은 영역 안에 산재하며 중핵박물관과 연계하고 위성박물관끼리 연결성을 가지는 형태로 조성되고 운영된다. 그러나 중핵박물관과의 종속관계는 아니며 독립적인 기능과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현재는 구역의 문화유산과 일반 문화공간이 별다른 연계성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등록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공간, 지역주민의 기억, 지역의 인적 자원 등의 모든 자원을 지역의 유산으로 즉, 위성박물관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때의 원칙은 영주와 영주동의 지역성, 역사성, 정체성 등을 잘 보여주는 장소와 공간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지역의 유산을 모두 연결할 수 있어야 영주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중핵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의 조성 후에는 그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구역 내의 중핵박물관과 위성박물관, 기타

---

14) 배은석, 앞의 책, 55~56쪽.

15) 노시훈, 『생태박물관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94쪽.

16) 신현오, 「에코뮤지엄의 발전 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유럽과 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7쪽.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결해 지역의 특성을 잘 볼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해야 한다. 탐방로는 길을 따라가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도보길 형태가 바람직하다. 구역 내 문화자원을 특성별로 구분해 특정 주제를 가진 여러 개의 탐방로 개발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역사문화자원 탐방로, 근대문화유산 발견 탐방로, 지역의 인물 탐방로, 지역 산업 관련 탐방로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성박물관으로 개발된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세부 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구역 내 문화예술 관련 공간은 운영 프로그램이 다소 있지만,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운영 관련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근대한옥의 경우 역사성에 맞춰 한의학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광이발관은 근대 시기 이발 관련 전시 프로그램과 근대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풍국정미소는 영주의 근현대 산업유산 관련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영주제일교회는 지역의 종교 관련 콘텐츠 개발과 근대 교육 관련 프로그램, 구 영주역 관사는 철도 관련 영상과 기록물 등의 자료 전시와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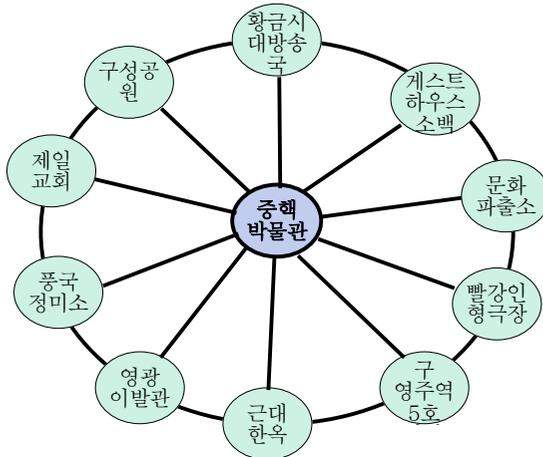
넷째,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전반적으로 주민이 주도해서 운영해야 한다. 에코뮤지엄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은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역이 진정한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전시관과 문화유산 공간, 문화예술 공간 등의 운영 인력을 주민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중핵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출신의 전시관 큐레이터,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 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미디어이터 양성도 필요하다. 문화예술미디어이터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이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민이 미디어이터 역할을 하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현안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역 내 주민들로 구성된 에코뮤지엄 연구회나 지역문화 연구회

를 꾸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지역 전문가 등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조직화 되고 집단화된 주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끄는 형태가 되어야만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지역주민의 수익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에코뮤지엄의 이상적 형태는 박물관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것이 영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수익 창출이 국내 여건상 매우 힘든 일이지만 구역과 거기에 살아가는 주민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자치 규약이 필요하다. 경제성 있는 콘텐츠 개발과, 수익모델 개발, 구역 내 상업활동 등에 관한 주민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합의의 산물인 자치 규약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치 규약에 따라 주민의 경제활동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수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일정 부분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림 1> 융합 방식의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예상 구성도



#### IV. 결론: 시사점 및 기대 효과

이 연구는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과 에코뮤지엄의 유사성에 착안해, 두 제도와 이론의 융합을 통해 문화수용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그리고 지역재생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영주시 영주동 일원에 조성된 근대역사문화거리의 현황을 토대로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구역에 에코뮤지엄 이론을 융합해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 주민 참여 등의 보완과 개선책에 대한 단초를 알아보하고자 했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영주시 자체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과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간이 중첩 또는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의 보존과 활용의 양상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치우쳐 있고 생활문화유산이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활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 대상지인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답사하고 관련 자료와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에코뮤지엄 이론을 제도에 융합해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과 중핵박물관과 위성박물관 조성, 주민에 의한 수익 창출의 중요성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하다. 먼저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에 관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부족한 점이다. 아직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구역의 공간 조성 과 개별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이 진행 중인 관계로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융합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에코뮤지엄 이론이 과연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적합한지 여전히 논란이다. 일례로 국내 태백시, 청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재생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에코뮤지엄 조성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sup>17)</sup> 그리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에코뮤지엄’

17) 최효준, 「서양미술제도사에서 에코뮤지엄 개념의 전개와 그 현재적 의미」, 『예술경

이 조성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sup>18)</sup>

또한 연구자는 에코뮤지엄에 관해서는 국내·외 현지 조사와 관련 자료를 상세히 조사한 바 있지만<sup>19)</sup>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의 경우 9곳 중 서천 판교와 여수 거문도, 영덕 영해의 현지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의 일반적인 양상에 관한 분석내용이 없고 영주의 사례만 다루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주제의 제안이다. 제도와 이론을 융합하고 학제적 접근 방식의 문제 제기를 통한 학문적 논의의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재생을 위한 융합 방식의 본 연구는 후속 연구자가 다양한 제도와 이론을 융합하고 이를 학제 간 종합적인 맥락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과 관련한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유산학, 역사학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이다. 최근 지역사회의 화두는 지역재생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이 자리하고 있다. 에코뮤지엄과 등록문화유산은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이며 확장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역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관련 연구가 현재의 추세에 적합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국내 에코뮤지엄과 선·면 단위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지역재생 방안으로서 지역 기여도가 낮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제도와 이론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연구』, 제1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01, 17쪽.

18) 배은석, 「경기도의 에코뮤지엄 수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찰」, 『박물관학보』46. 한국박물관학회, 2023, 42~46쪽.

19) 연구자는 중국의 에코뮤지엄을 2019년 8차례에 걸쳐 현지조사 했으며, 국내 경기도 에코뮤지엄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현지 조사와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4년 0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노시훈, 『생태박물관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김용희,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과 기대 효과」, 『건축과 도시공간』 31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83~88쪽.
- 배은석, 『에코뮤지엄-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북코리아, 2013.
- 배은석, 「경기도의 에코뮤지엄 수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찰」, 『박물관학보』 46. 한국박물관학회, 2023, 25~56쪽.
- 성진석, 「주민주도형 마을박물관의 현황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언-거창군 임블고품전시관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31. 한국박물관학회, 2016, 25~49쪽.
- 송호상, 「등록문화재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의 역사성에 대하여」, 『지역사회연구』 제31권 2호, 2023, 185~213쪽.
- 신현오, 「에코뮤지엄의 발전 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유럽과 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오하라 가즈오키,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김현정 옮김, 아르케, 2008.
- 최효준, 「서양미술제도사에서 ‘에코뮤지엄’ 개념의 전개와 그 현재적 의미」, 『예술경영연구』, 제1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01, 9~31쪽.
- Peter Davis, Ecomuseums A Sense of Place, London: Continuum, 2011.

## 보고서

- 문화재청, 『2018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9.
- \_\_\_\_\_, 『2019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20.
- \_\_\_\_\_, 『2020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21.
- \_\_\_\_\_, 『2021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23.

## 인터넷 사이트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http://www.khs.go.kr)
- 영주디지털문화대전, [yeongju.grandculture.net](http://yeongju.grandculture.net)

Abstract

## A Study on the Convergence Method of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by Line & Plane' and Ecomuseum

-Based on Yeongju Modern History and Culture Street-

Lee, Ha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by fusing the theory of ecomuseum and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RCHS" hereinafter) by line&plane so that local residents can become the subject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RCHS by line&plane.

Yeongju was once a railroad transportation center, but is now declining. Accordingly,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by utilizing modern cultural heritage, and the area of Yeongju-dong was designated as RCHS by line&plane and is attempting to revitalize the region.

However, local residents are being alienated. The aforementioned projects focus on the creation of physical spaces focused on building creation and environmental maintenance, and it is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to be the subject of the project.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method of converting the ecomuseum theory, which is part of a new museum study led by residents, with RCHS by line&plane. They have similarities in terms of the use of cultural resources within a certain area and the consent of residents within the area. However, on the one hand, there are differences in creation, operating entity, standards

of cultural resources, and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methods.

Based on this recognition,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Yeongju Modern History and Culture Street were analyzed.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lack of connection between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space, space creation and operation problems, lack of operation programs, and lack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were identifi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stablishment of the ecomuseum theory, the development of a satellite museum, and their connection, specialized operation programs, resident-centered operation, and resident profit generation were proposed to be integrated into Yeongju's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tree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nd expansion of discussion in related academic fields in the future by raising the issue of a convergent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ultimate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reation of local culture and local regeneration.

**keywords :**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by line&plane, Ecomuseum, Local Regeneration, Local Residents, Local Resources